

“5·18에 추경안 처리 국회 모욕하고 광주 배신하는 처사”

평화당 강력 반발...산업통상위 등 상임위 보류

“5·18 기념식날 본회의의 참석 어려워”...처리 불투명

국회가 16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민주당이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18일 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또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다뤘다. 상임위 중 정무위는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성장지원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편성한 출자자금이 기존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줄었다. 대신 조선업 구조조정 중인 경남 통영과 한국GM 공장이 있는 전북 군산지역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은 567억원으로 300억원 증액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기재위, 환경노동위 등도 소관 추경안을 상정하고 소위를 넘겼다.

이처럼 예결위와 상임위의 추경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여야가 합의한 ‘18일 본회의의 처리’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예결위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18일 밤 9시로 잡혀있는 만큼 그전까지 추경안을 의결해 넘길 계획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여야가 합의한) 18일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

다. 그는 또 “이번 추경은 특히 한국지엠(GM) 사태로 (타격을 받은) 군산을 비롯한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이 주요 내용”이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화당이 ‘18일 처리’에 반대하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고, 다른 당 일각에서도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추경안 심사 및 처리가 애초 여야 합의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당장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가 바로 산회하기도 했다. 산업위 소관 부처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지원 등 이번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1조9000억원이 가까운 예산이 배정돼 있다. 같은 평화당이 상임위원장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아직 회의 일정도 안 잡혔다.

앞서 평화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평화당은 불과 사흘 만에 추경안 심사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5·18 민주화운동 당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도 어렵다며 18일 추경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조배숙 대표는 의회에서 “민주당의 18일 추경안 처리 방침은 국회를 모욕하고



민주당 조배숙 대표(오른쪽부터), 장병완 원내대표, 이종우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추경안 처리 시한에 대한 당의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16일 오전 국회의정실을 향하는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을 홀대하고 광주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공식 항의하기 위해 공동고급단체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를 의총에 불러 ‘18일 불가’ 입장을 같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장 원내대표의 문제 제기가 타당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방선거 압승 거둬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민주당 중앙선대위 출범식

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라다운 나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제는 보수층마저도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이 여세를 몰아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정착되고 경제가 살아나도

록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출범식에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추미애 대표가, 수석공동선대위원장은 이해찬 의원이 맡는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석현·박영선·우상호·홍영표·이상민·오제세·전해철 의원과 김우남·강기정 전 의원,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이 임명되는 등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낙마한 주자들을 중용했다.

선거대책본부장은 이춘석 사무총장, 종합상황실장은 윤호중 의원, 공보단장은 박범계 수석 대변인, 중앙유세단장은 정청래 전 의원, 정책위원장은 김태년 정책

위의장, 정책지원단장은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장이 맡게 됐다.

민주당은 또 선대위 산하에 ▲튼튼한 정부 정책위원회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 ▲평화가 경제다 위원회 ▲일자리 혁신성장 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뒀다. 또한 정책지원단을 신설, 외교안보 및 일자리를 비롯한 민생과 국민안전 등 정책을 생산하기 위한 5대 정책본부로 뒷받침 정책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선대위 출범식은 민주당의 고공 지지율을 반영하듯, 화기에예한 분위기에 파란색 상의를 맞춰 입은 후보들은 저마다 무대 위에 올라 필승의지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투쟁보다 값진 주먹밥 나눔공동체



김은영의 '그림 생각'

(225) 오월 광주

“금남로는 사랑이었다/내가 노래의 평화에/눈을 뜬 봄날의 언덕이었다/사람들이 세월에 머리를 적시는 거리/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처음으로 알아낸 거리/금남로는 연초록 강 언덕이었다” <김준태 작 ‘금남로 사랑’중에서>

오월 광주가 뜨겁다. 최근 5·18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미공개 영상이 38년 만에 공개되고, 계엄군들의 반인륜적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면서 광주의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는데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러야했음

까를 생각하니 한없이 마음이 먹먹해진다.

5·18광주 이후로 이 땅의 문화와 미술과 노래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죽음과 인권, 평화와 사랑에 새롭게 눈을 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오월 광주를 공동체적 신명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표적인 작품으로 홍성담작가(1955년~)의 판화그림 ‘대동세상-1’(1984년 작)을 앞세우고 싶다.

1984년 ‘광주전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 결성식을 앞두고 창립기념 판화로 제작했던 이 작품은 오월 광주를 상징하는 이른바, ‘광주정신’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인 것 같다. 총을 들고 나가 싸우기 위해 트럭을 타고 출정하는 시민군들과 이에 환호하는 시민들, 그들에게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어머니들의 사랑은 항거와 투쟁을 넘어 나눔과 공동체의 가치를 절절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다.



홍성담 작 '대동세상-1'

5월31일까지 메이홀에서 ‘홍성담 오월 판화 한마당’전을 열고 있는 홍성담 작가는 오월판화 일기를 담은 저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연작판화 오월’에서 “이 판화를 계기로 사람들은 오월 광주를 희망과 승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국내 문화 운동의 방향도 승리와 희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열정적인 민중들의 요구가 판화에 적절하게 잘 표현되었고 그로 인해 이 판화그림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비엔날레국제정책연구소장·미술서사>

野3당 개헌연대 민주·한국당에 개헌 협상 재개 촉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으로 구성된 ‘야 3당 개헌연대’가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개헌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개헌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각 당 원내대표와 현정특위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전에 새로운 개헌 일정 합의와 연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협상대이블에 마주 앉을 때”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개헌연대는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현정특위 간사 8인이 참

여하는 ‘8인 개헌협상회의’의 즉각 추진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가동과 활동기한 연장, 5월 국회에서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

개헌연대는 “당초 합의했던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낼 것을 거대 양당에 촉구한다며 “야 3당 개헌연대의 중재안과 국민의 힘과 뜻으로 개헌열차의 기적소리를 다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연대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겨

냥, “거대 양당의 타협 없는 정치와 4인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여실히 보여준 ‘가득 나눠먹기’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국회 패싱’ 일방통행과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으로 인해 국민이 만들어준 천금 같은 기회가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했다”며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는 청와대와 거대 양당이 만든 것이 아닌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8년 무안공항직항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짜짜우~~~

일본기타큐슈,오사카,다낭,방콕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13일부터 주 3회 출발 / 화,금,일 정기편 확정

운항스케줄 오후(화,금,일) 무안-기타큐슈 18:00-19:10 / 기타큐슈-무안 19:40-20:50

기타큐슈 (일출발) 한정 특가

2박3일 호텔1박 /고급 온천별장1박 399,000 원~
 2박3일 호텔1박 / 온천료칸1박 499,000 원~
 3박4일 호텔2박 /고급 온천별장1박 599,000 원~

아이구치폭격 699,000 원~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취항 !!

7/18부터 ~ 8/21까지 총 19회

7월 18,21,24,25,27,28,30,31 8월 2,3,5,6,8,9,11,12,14,17

[동경 준특급 +특급] 1,290,000~
 [고급특급 특급] 1,450,000~
 [골프 특급] 1,790,000~

무안 → 다낭 직항전세기 3박4일(화) / 3박5일(금)

2018. 5. 18. 이후 (매주 화, 금 출발) 짜짜우~~~

VN 베트남국영항공사 (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서비스

A-321-200 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기내담요,베개 비디오상영

화출발	무안-다낭 08:05-10:40 / 다낭-무안 14:40-20:30
금출발	무안-다낭 21:35-00:10 / 다낭-무안 01:05-06:55

[골드] 다낭,후에,호이안 4일 699,000~
 [골드] 다낭,후에,호이안 5일 769,000~
 [프리미엄] 다낭,후에,호이안 4일 799,000~
 [프리미엄] 다낭,후에,호이안 5일 969,000~

무안→오사카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오사카,나라,교토 [2박3일] 699,000원~ 출발일 (6/20,6/27)
 오사카,와카야마,교토,나라,고베 [3박4일] 899,000원~ 출발일 (6/28)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블라디/하바를 전세기 취항 !!

7/11부터 ~ 8/16 까지 총 13회

[알뜰 3성급] 1,090,000~
 [실속 5성+3성급] 1,190,000~
 [특급 5성급] 1,350,000~

국선수가 요근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무안 → 제주도

2박3일 (주중) 299,000원~ / 2박3일 (주말) 37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임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제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등다2003-1호

※ 상품조건 : 여행기간에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여행보험: 1만원, 국내보험 5천만원, 관광진흥회가입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중 지역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 참가 요건은 상품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인당 항공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회 가입 없음 ※ 예약시 계약서 (특수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김해공항, 기사/기타드 통시료, 선제비용, 각종 비리비용 별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